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3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주)동우팜투데이블 투자협약 체결식에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이계창 (주)동우팜투데이블 대표이사, 송성환 도의장, 유기상 고창군수 및 참석자들이 투자협약식을 갖고 있다.

## 향토기업 동우팜투데이블 고창에 1500억원 신규투자

### 친환경 축산 선도기업... 전북도·고창군과 협약 위생·친환경시설 구축... 직접고용 효과 650명

전북도와 고창군은 23일 전북도청에서 친환경 축산 선도하는 전북 향토기업인 (주)동우팜투데이블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동우팜투데이블은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17만7,423㎡(5만8,671평)에 약 1,50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시설을 구축하고 전라북도 고창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최근 생산능력 한계달에 따른 성장정체 현상을 겪어 온 (주)동우팜투데이블은 성장정체를 해소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영업이익을 향상하고자 신규투자를 결정했다.

(주)동우팜투데이블은 신규 투자공장에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를 저감하기 위해 밀폐, 내부공기 포집 및 세정, 고열처리 등을 거쳐 대기로 배출하는 최첨단 친환경시설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주)동우팜투데이블의 신규투자로 발생하는 직접고용 효과만 650명으로 전북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에 투자금액 1천억원, 직접고용 추가 300명 규모의 2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신규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상인 및 향토업체의 물품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 업체 가운데 하나인 (주)동우팜투데이블은 1993년 설립된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으로

Farm to System(농장에서 식탁까지)과 One day System(당일생산, 당일출하) 및 Cold Chain System(냉장유통출하)을 도입해 브랜드 '동우 바른 닭고기'를 중심으로 제품인지도를 향상시켰으며, 판매다각화 및 시장개척을 위해 다양한 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 식품기업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투자환경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주)동우팜투데이블 이계창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가정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식문화 변화로 손쉽게 조리 가능한 부분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배달음식문화의 발달로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전북도와 고창군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주)동우팜투데이블의 기업 활동을 적극 응원할 것이며, 앞으로 전라북도와 함께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본격

### 시민·각계 전문가 부지 개발 가능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공론화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전준비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긴밀한 회의를 갖고 공론화 방식 결정, 의제 설정,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 규정(안) 등을 결정했다.

우선 대한방직 부지의 공론화 방식으로는 의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장·단점을 토론한 뒤 적합한 대안을 모아 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이나 충분한 학습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론을 도출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론화 의제는 대한방직 부지의 △

개발 가능 여부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 △기반시설 적정 여부 △개발이익 환수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속성을 고려해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을 비롯해 같은 전문가 1명, 도시계획 전문가 1명, 사회경제 전문가 2명, 회계(감정평가)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여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회적 합의로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근거 마련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선정, 위원 임기, 전문가 자문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 △특혜 논란 차단 △투명한 시정운영을 통한 행정 신뢰 향상 △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윤성기자

## 도내 모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전북도는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해 도내 32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과 '방역물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 도내 32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약 1천만원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당 30만원씩 물품 구입비로 지원되며, 협회를 통해 물품을 공동 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용 마스크 3,200매와 비접촉식 체온계 32개를 공동 구입하여 배부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